책자형선거공보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산시 선거구

“
당 다 필요없더라!
니가 제발,
경산 좀 살리도!
”

와촌 어르신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

일 잘하는
새로운
국회의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전)

전상헌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경산시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 민주당	전상헌	남	1971.03.30. (49세)	정치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전)이광재 국회의원 보좌관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합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39,340	110,700	128,640	모 : 없음	장남 : 없음 차남 : 없음	육군상병 (복무만료) (소집해제)	해당없음

3. 세금 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8,455	없음	없음	해당없음
후보자	7,968	없음	없음	
배우자	487	없음	없음	
직계존속	모 : 신고거부			
직계비속	없음	없음	없음	

4. 소명서

해당사항 없음

끝까지 당신편
언제나 경산편
전상헌

안녕하십니까?
전상헌 인사드립니다

경산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방역이 더 확실했더라면…
마스크가 조금 더 넉넉했더라면…
그저 이 모든 것들이 시민분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경산시민여러분!
이제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입니다. IMF보다 더 힘든 시기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우리 경산.
경산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빨리 일어서야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경산을 빨리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
힘든 경산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꾼'을 뽑는 선거,
그만 싸우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4년 내내 삿대질에 고함만 지르고 반대만하는
'싸움꾼'을 뽑으시겠습니까?
경산을 일터로 생각하며 '땀' 흘려 일하는 '힘' 있는
'든든한 일꾼'을 뽑으시겠습니까?

입법부, 행정부, 연구소 경험을 가진 든든한 후보
집권 여당, 행정부에 풍부한 인맥을 가진 힘 있는 후보
경산에 많은 국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전상헌이 앞장서서 경산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2020년 4월

전상헌 올림

당은 다 필요 없네!
경산을 다시 일으켜 주게

독립운동가의 후손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사회부장관, 5선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우촌(牛村) 전진한 선생의 후손입니다. 어르신들의 나라사랑 정신으로 무너진 경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우촌(牛村) 전진한 선생 ▶

노무현 전 대통령·이광재의 정치동지

노무현대통령선거 자원봉사로, 이광재 국회의원을 따라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에서부터 보좌관까지 차근차근 실력을 쌓았습니다.

◀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광재 의원 보좌관들과 함께

국가운영 섭렵한 입법·행정전략가

이광재(전 강원도지사)·박남춘(현 인천시장) 국회의원 보좌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끈 연구재단 여시재(與時齋), 지역발전정책 콘트롤타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무경험을 쌓았습니다.

▲ 김부겸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김부겸과 이광재(오른쪽)

국정운영 전 분야를 경험했습니다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산업자원위, 문화관광위, 행정안전위, 예산결산위를 비롯하여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까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전 분야를 경험하고, 실력을 쌓았습니다.

◀ 여시재(與時齋) 설립 워크숍에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함께

경산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재직시 경산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재개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메디컬 융합섬유소재산업 활성화 예산 14억원 증액,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기반 구축 예산 30억원 확보, 동부동 생활문화복합센터 9억5천7백만원, 압량청년 지식놀이터 예산 62억원 등을 확보했습니다.

화합의 정치, 일하는 정치 하겠습니다

경산의 발전은 당이 아니라 사람이 합니다. 경산의 전임 국회의원, 시장님들의 자문을 받아 화합의 정치 하겠습니다. 중앙정치에 몰두하지 않고 오직 경산의 위상을 우뚝 세우는데 매진하겠습니다. 경산을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다 함께 이겨냅시다!

국민일보 2020. 3. 11.

해리스 주한 美 대사 "한국 코로나 대응, 세계적 표본"

해리스 대사는 트위터에 따로 글을 올리고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미국행 여행객 관리 조치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인천공항 방문은 훌륭했다"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응 노력이 인상 깊었다. 많은 노고에 감사하다"고 극찬했다.

news1 2020. 3. 24.

'코리아 커브' 감탄한 NYT "미국 코로나 극복하려면 韓 배워라"

NYT는 "한국의 사례는 중국이나 유럽·미국과 달리 경제를 중단시키지 않고 바이러스 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각국은 한국으로부터 ⊿신속한 정부 개입 ⊿대규모 검사 ⊿밀접 접촉자 추적·격리·감시 ⊿시민들의 지원 등 4가지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2020. 3. 21.

韓 코로나 대응 호평 속 이탈리아 "한국 따를 준비 됐다"

월터 리치아르디 이탈리아 보건부 자문관은 2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라 레푸블리카 인터뷰를 통해 "이탈리아 정부 차원에서 한국 대응 모델의 세부 방식을 연구하기 위한 스터디 그룹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이사회 일원인 리치아르디는 "최근 며칠간 이탈리아와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그래픽을 비교·분석했는데 볼수록 한국의 대응 전략을 따라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면서 "보건장관 동의를 구해 이탈리아 전역에서도 이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2020. 3. 12.

WP칼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민주주의 강점 보여줘"

아울러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자발적으로 (방역에) 협력하고 있다"며 "주요 행사들이 취소됐고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도시 전체를 감옥으로 변모시키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에게 확진자 대부분이 나온 대구와 거리를 두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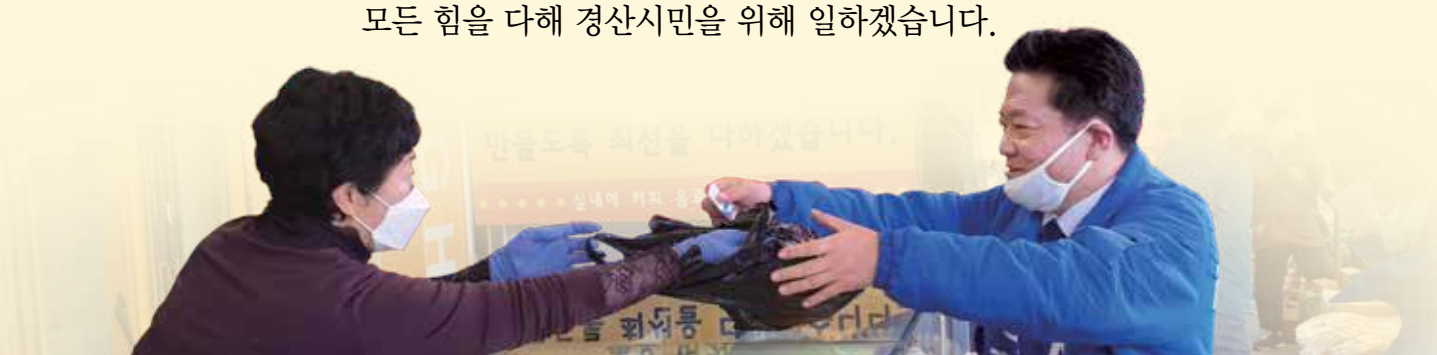
KBS 뉴스 2020. 3. 11.

AFP "한국 코로나 대처는 모범사례… 일본·이탈리아와 대조"

AFP는 한국의 우수한 검사 역량에도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하루에 코로나19 검사를 약 1만건 시행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빠른 검사 속도 때문에 감염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통신은 "한국은 하루에 검사를 1만5천건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이날 기준 약 22만 건의 검사를 시행했다"며 "지정된 검사 시설이 500곳이 넘고 이 중에는 환자와 의료진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드라이브스루 시설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날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후보로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힘을 냅시다.
우리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세계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더욱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제가 가진 중앙정부의 인맥을 총동원,
모든 힘을 다해 경산시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편
언제나 경산편
전상헌

‘코로나19’ 대응,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감염병특별관리지역 지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경연수원 격리시설 지정, 격리시설 환자의 의료폐기물 용기 추가확보, 코호트 격리시설 예비비 지원 등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했습니다

NEWSIS 2020. 3. 23.

민주당 김부겸·전상헌 후보 “재난기본소득 현금 직접 지원해야”

전 예비후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산시민을 위로하고 고충을 듣기위해 (22일 오후에) 경산을 방문했다”며 “두 사람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대구신문 2020. 3. 3.

[경산] 민주당 전상헌 후보–최영조 시장, “중소벤처공단 대경연수원→코로나19 격리시설 지정” 공동 노력

전 후보는 3일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판정 대기자들을 위한 격리시설이 부족해서 경산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을 사용하고 싶다는 경산시의 요청을 받아 중소기업벤처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지속적인 논의 끝에 연수원을 확진판정 대기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됐다”면서 “앞으로도 경산시장과 협의를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 2020. 3. 16.

전상헌 예비후보 “‘특별재난지역’선포, 위기극복·피해지원 위한 과정일 뿐… 필요한 일 계속 할 것”

전 후보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감염병에 의한 첫 사례로 이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피해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지원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후보는 “‘감염병특별관리지역’ 추가 지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수순이었으며, 이번 재난지역선포 또한 경산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경산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필요한 ‘일’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피해지원 등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미 위기극복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입법	정책	지원
2020. 6. ~ 2020. 9.	■ 감염병 피해구제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발의 ■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에 관한 법안 발의	■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재난기본소득 현금지원 ■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 저소득 특수직 생계비 지원 ■ 감염자 및 가족 스트레스 관리 ■ 지역상권살리기 캠페인
2020. 10. ~ 2021. 9.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SOC 예산 조기집행 ■ 어르신 전담 ‘주치의제도’ 전문가 TF 구성	■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 감염자 및 가족 스트레스 관리 ■ 지역상권살리기 캠페인
2021. 2. ~ 2021. 9.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 어르신 보건의료복지센터 설치 ■ 청년창업 펀드 조성	■ 감염자 및 가족 스트레스 관리 ■ 지역상권살리기 캠페인

특별재난지역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납부 유예 ■ 지방세 감면 ■ 건강보험료 감면 ■ 국민연금 납부유예 ■ 공공요금 감면
■ 복구자금 융자 ■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미래통합당,
대구·경북을 외면했습니다!

사천(私薦), 막장공천… 오직 권력에만 관심
'코로나19' 태풍 속 대구·경북 시·도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매일신문 2020. 3. 9.

[사설] 통합당 대구경북 공천, 지역민 철저히 무시한 오만의 극치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대구경북 지역 공천이 지역 여론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 선거를 망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됐던 20대 총선 공천과 무엇이 다르냐는 소리까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공천 결과는 '개혁 공천'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지역 여론은 제쳐 놓고 공천관리위원회 마음대로 지역과 무관한 인사들을 말 그대로 내리꽂았다. 일부에 대해서는 '사천'(私薦)이라는 의심까지 제기된다.

매일신문 2020. 3. 12.

[자유성] 대권놀음에 희생된 TK공천

이로써 영남출신 대권경쟁자를 정리하고, 친황계 서울TK를 무더기로 TK에 꽂으면서 친황 독주체제를 공고히 했다. 이에 TK 공천은 신인 발굴도, 개혁도 없이 엉망이 됐다. 하지만 경쟁자들 제거와 자기 사람 심기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게임과 흥행의 성격이 강한 정치현장에서 나홀로 독주는 성공률이 낮다. 총선결과를 가늠할 수 없지만 미래통합당이 매번 막장 공천을 되풀이한다면 차기 대선승리는 장담할 수 없다.

매일신문 2020. 3. 8.

통합당 TK 공천, 민심 '부글부글'… 지역 인재 기회 줘야

또 다른 시민(48)도 "이번에 통합당 단수 공천을 받은 분들이 평소에도 고향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 애썼다면 반감이 없었을 것이다. 고향 모르고 잘 살다가 '당선'만 노리고 온 이들이라는 느낌을 주니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라며 "오랜 시간 지역에서 봉사한 분들에게 반드시 (경선) 기회를 줘야 한다"며 강력 요구했다.

영남일보 2020. 3. 16.

강남은 반발하자 공천 철회… TK는 '잠자코 있어라?'

하지만,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천'에다, '막장 공천' 논란까지 야기한 TK(대구경북)지역 공천에 대해선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 같은 보수의 텃밭인 강남은 공천 잡음이 일자 곧바로 수습책을 내놓으면서 TK의 반발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통합당의 행태에 TK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영남일보 2020. 3. 11.

김형오 '막천' 변명에… 정치권 "이한구 보다 더 개판"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공천을 두고 '막장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당 소속 대구경북(TK) 현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낙천한 예비후보들이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20대 총선을 망쳤다고 평가받는 '이한구 공관위'보다 더 개판"이라며 "TK의 정치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점을 사죄하고 그 입을 다물라"고 맹폭했다.

케이투데이 2018. 7. 5.

TK의원 국회 본회의 재석률 '전국 꼴지'

5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의 출석, 재석(자리지킴), 점검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88.19%인 반면 재석률은 66.49%로 사실상 출석 도장만 찍고 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석률이 60% 미만인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은 조원진 의원 외에도 최경환(경산, 36.14%), 박명재(포항남·울릉, 37.31%), 김광림(안동, 38.81%),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39.55%), 김석기(경주, 40.30%)로 본회의 재석률 하위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월간조선 2020. 3. 8.

통합당 TK 공천 '주는대로 받으라'?… 텃밭 민심 이반 초래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대구경북(TK) 지역구 후보 공천결과를 두고 '막장공천'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민들에게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내놓은 TK 공천결과는 '주는 대로 받아먹으라'는 오만함의 극치라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천을 두고 ▷낙하산 투입 ▷심사기준 불분명 ▷실력자들의 사천 ▷출마 선거구 임의조정 등 그동안 반복했던 공천 농단 관행을 답습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선거구 변동 가능성조차 간과하는 '헛발질'까지 선보인 결과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끝까지 당신편
언제나 경산편
전상헌

국회의원 의정활동

상위 1%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 3위 안에 들어가는 자랑스러운
경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일보 2019. 7. 3.

‘의원님’된 보좌관 36명… 금배지 제값 하더라

의정활동을 보좌하며 정무 · 정책 · 입법 분야를 두루 섭렵한 책사들인 만큼, 국회 등원 후 이들의 활약은 남다르다는 평가다. 대부분이 초선 시절 원내대변인, 당 대변인에 낙점됐고, 재선이 된 이후에는 대외 협상을 주도하는 원내수석부대표에 기용됐다.

경향신문 2020. 3. 8.

보좌관에서 의원으로!

전 예비후보는 “이광재 전 의원 역시 수행비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서 “자신에게 수행비서부터 시작해 일을 배우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2013년까지 8년 11개월 동안 일했다. 전 예비후보는 “보좌관들은 정책 · 입법 · 정무를 두루 섭렵해 법률과 정책을 정치현장에 접합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민주당에게는 험지지만 꼭 당선돼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경북매일 2020. 3. 10.

전상헌 “국민에 ‘현금 직접 지원’ 서민경제활성화”

전상헌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에게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제시했다. 전 예비후보는 “몇몇 정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보지 말고 인식의 틀을 바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 2020. 3. 17.

김부겸·이광재, 전상헌 예비후보 후원회장 맡아

또 “이광재 전 지사는 전 예비후보가 비서관과 보좌관을 거치며 체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끈 정치동지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 예비후보는 그동안 쌓은 실력을 지역에서 증명하고 있다. 대구 · 경북을 위해 일 잘하는 든든한 국회의원이 될 재목(材木)이다”고 추어올리기도 했다.

‘일’하는 국회 만들어 주십시오

‘싸움’만 하는 국회, ‘비난’만 하는 국회 이제는 거둬주십시오.
‘싸움’이 아니라 ‘일’을 하는 국회,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가 필요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힘은 바로
경산시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경산시민에게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경산을 ‘표밭’이라 생각지 않겠습니다.
‘일터’로 여기겠습니다.
경산을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경산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든든한’ 일꾼,
경산시민에게 감사할 줄 아는 국회의원
꼭 되겠습니다.

경산의 운명을

어르신들 병원비 줄여 드리겠습니다
경산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 어르신 주치의제도
- 노인보건의료복지센터 설치
- 의료급여시스템 개선
- 지역응급의료센터 건립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경산을 경북의 산업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8,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대학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 하양 대조리 4차 산업 집적단지 조성
- 임당역 기술벤처·지식산업센터 조성
- 압량·하양 대학가 명소화사업
- 와촌 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완수

관광으로 돈버는 도시
경산은 이제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합니다

- 대구도시철도 1·3호선 연장사업
- 자인 군부대 이전
- 하양 장군산 시민공원 조성
- 구시가지 전·근대 역사문화벨트 사업
- 자인 5일장 관광상품화
- 경산역 KTX 8회 증차
- 용성·남산·남천 명상센터, 힐링둘레길 관광지 개발
-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끝까지 당신편
언제나 경산편
전상헌

바꾸겠습니다!

수성구를 뛰어 넘고, 학부모님 걱정 덜어 드리겠습니다

- 유치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및 보육환경 개선
- 지산학(地産學) 네트워크 구축
- 유학 같은 방학
- 대학 부설 초·중·고 설립
- 아침급식 시범실시
- 초등학교 자유학구제 확대 실시
- 생활SOC, 장난감도서관·마을도서관 건립
- 진량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 설립·지원

경산의 우수한 인재육성, 좋은 인재가 경산으로 모입니다

- 공공기관 채용 확대(30~40%)
- 청년창업 펀드 조성 - 창업활성화
- 정평동 청년신도시·미래형 지식산업단지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제정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긴급피난처 의무 마련
-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힘으로 2022년
안심에서 하양까지 지하철1호선 확실히 완공시키겠습니다.
하양에서 진량까지, 진량에서 영남대, 경산역, 범물동까지
도시철도를 반드시 연장하겠습니다.
오직 여당 후보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는 누가 잘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누가 잘 조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제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여당 후보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경산의 10년을 좌우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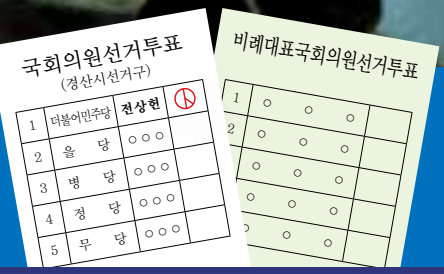
최경환 전 의원님의 10년 의정활동은 '여당' 때였습니다.
백척간두 위기 앞에 놓인 경산은 지금, '여당'의 힘이 필요합니다.

최경환 전 의원님의 자산과 부채도 모두 이어받겠습니다.
일 잘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택해주십시오.

경산은 제게 표밭이 아니라 일터입니다.
경산을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저는 정당의 편이 아니라, 언제나 경산시민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경산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단 한 번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전상헌 올림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에는
일 잘하는 전상헌 찍으시고
정당명이 적힌 투표용지에는
마음에 드는 정당 찍으시면 됩니다

장병 여러분!
최소한 개인의 노력 앞에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과 낡은 제도로 꽉 막힌
현재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사전투표 안내 4월10일(금)~11일(토) 오전6시~오후6시
거주지 상관없이 신분증 필히 지참

끝까지 당신편, 언제나 경산편

1 전상헌

- 1971년생(49세)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전)·전략기획위원(현)
- 국회 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 입법보좌관(전)
- 이광재 국회의원 보좌관(전) • 박남춘 국회의원 보좌관(전)
- 경북테크노파크 산업 및 기업육성자문위원(현)
- 연구재단 여시재(與時齋) 경영지원실장(전)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구동중학교 졸업
- 대륜고등학교 졸업 • 경북대 사범대 부설초교 졸업

경북 경산시 중앙로 64, 3층 (중방동, 황실빌딩) **전화** 053-816-7750 **팩스** 053-816-7751 **이메일** helloks2020@naver.com